KB증권

FIRST TO THE MARKET

더 많은 리포트 보기

2022년 8월 9일

금융 Analyst 강승건
02-6114-2938 cygun101@kbfg.com
연구원 우도형
02-6114-2955 dohyeong.woo@kbfg.com

보험

수도권 집중호우의 영향: 통제 범위내의 보험금 지급 전망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동차 침수 사례 급증

- 전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수도권의 차량 침수 사례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호우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차량 침수 피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자동차의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침수 피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은 증가할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이후 손해액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우 우수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3분기 손해보험사의 실적에 일정부분의 영향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
- 2019/2020년 보험료 인상 효과 소멸과 2022년 보험료 인하의 영향으로 낮아진 자동차보험료 증가율로 3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상승을 전망하고 있었으며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하여 손해율 상승 폭이 기존 전망대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집중호우에 따른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금은 통제 범위내에 있음

-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손해보험사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하지만 KB증권에서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과거의 케이스와 동일하게 통제 범위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해액의 경우 이벤트 별 XOL (초과손해액 재보험 (Excess of Loss)) 한도를 설정하는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즉 이번 이벤트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한 손해액의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원수보험사 (손해보험사)가 지급하고 설정된 수준을 넘어서는 보험금의 경우 재보험사가 커버하게 됨
- 현재 2위권 손해보험사 (DB손보, 현대해상)의 경우 이벤트 XOL의 한도는 70~80억원 내외이며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삼성화재는 120억원~140억원 내외로 추정됨
- 따라서 금일 집중호우가 재개되어 추가적인 차량 피해가 발생한다 하여도 하나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XOL 한도를 넘어서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재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음. 이를 근거로 통제범위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함
- 2011년에도 강남에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피해가 급증하였던 케이스가 있었음. 그 당시 2위권 손보사는 약 50~60억원 내외, 삼성화재는 100억원 내외의 관련 보험금 증가 효과가 손해율에 반영되었음.
- 현재 침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사들이 XOL 한도까지 손해액이 반영한다면 분기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2위권손보사는 0.7%p, 삼성화재는 1.0%p의 영향이 반영될 것이며 연간 기준 손해율에는 0.2%p 수준의 상승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추정됨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